

기성용, 아시아 정상 향한 마지막 도전 허무하게 끝

부상으로 소속팀 조기 복귀...대표팀 은퇴 가능성도



아시아 정상을 향한 기성용(뉴캐슬)의 3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이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끝났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대한축구협회는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 기성용이 오른 햄스트링 부상으로 남은 경기에 뛰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기성용은 21일 오전 영국으로 떠난다. 기성용은 지난 7일 필리핀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오른 햄스

트링을 다쳤다. 돌과 과정에서 근육에 이상을 느끼면서 곧장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장면이 기성용의 마지막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주일 가량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표대로라면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았다. 토너먼트가 시작되면 훌훌 털고 돌아올 줄 알았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재활 과정은 무척 순조로웠다. 초기 호텔에서

치료를 받던 기성용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라운드로 나섰다. 지난 18일에는 공을 활용한 훈련까지 실시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스타프들을 세워두고 긴 패스를 전달했고 김진현(세레소 오사카)이 지키는 골문을 향해 슛 연습도 했다. 속도를 낸다면 22일 바레인과의 16강전 교체 출전도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들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기성용은 19일 훈련 후 통증을 호소했다. 김진현과 부상 부위 회복이 더딘 것이 발결했다. 대회 종료까지 2주 가량이 남았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서둘러 남은 경기에 뛸 수 없다고 공표한 것과 소속팀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최초 부상 때보다 상태가 안 좋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기성용에게 UAE 대회는 마지막 아시안컵이었다. 기성용이 아시안컵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 때다.

만 22세의 나이임에도 대범한 플레이로 주전 자리를 꿰찼다. 일 본과의 4강전에서는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었다. 당시 원숭이 세레머니를 두고 축구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은 일본에 패해 3위로 대회를 마쳤다.

2015년 호주 대회에서는 주장 완장을 썼다. 광태휘, 이근호, 박주호 등 선배들과 손흥민, 김진수 등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호주와의 결승전에서는 후반 종료 직전 손흥민의 동점골을 도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우승과 연이 닿지 않았다.

어쩌면 앞으로는 이에 대표팀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성용은 부상 소식이 전해진 후 인스타그램에 '신계 감사드린다. 마침내 끝났다(THANK GOD IT'S FINALLY OVER)'고 적힌 사진을 게재했다. 선수의 구체적인 의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태극마크를 내려놓겠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뉴스

“수비 아닌 실리 축구”가 만든 ‘박항서 매직’

아시안컵 16강전 요르단에 승부차기 4-2 승리



20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AFC 아시안컵 16강전 베트남과 요르단의 경기, 베트남 축구대표팀 박항서 감독이 승부차기를 앞두고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이어지는 ‘박항서 매직’의 원동력은 실리 축구다. 잔뜩 움츠렸다가도 필요할 때는 칼날을 꺼내들면서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의 토너먼트 첫 관문 통과라는 역사를 썼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20일 오후 8시(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019 AFC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연장전 포함 120분간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겼다.

베트남은 5백으로 경기를 시작했다. 실점 없이 전반을 마친 뒤 후반에 승부수를 걸겠다던 박 감독의 공표대로였다. 11월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을 시작으로 3개월 넘게 손발을 맞춘 베트남 선수들은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요르단의 발을 묶었다.

전반 39분 박 감독의 구상이 어

긋났다. 세트 피스에서 바벨 알델라흐민에게 절묘한 오른발 감아차기로 득점을 헌납한 것이다. 위험지역에서의 불필요한 반칙이 실점으로 이어졌다.

지고 있는 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다. 내일이 없는 토너먼트라면 더욱 그렇다. 상황이 꼬이면 베트남은 후반 들어 공격의 비중을 높였다. 수비에 무게를 뒀던 사이드백들도 좀 더 높은 위치에 자리했다.

베트남의 변신은 후반 6분 결실을 맺었다. 응우옌 트롱 호앙의 크로스를 응우옌 콩 푸엥이 넘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마무리했다. 수비 뒷공간을 향하는 날카로운 크로스와 마무리 능력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동점골 한 방으로 베트남은 다시 여유를 찾았다. 공격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뒷방 정비에도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결국 베트남은 연장

적인 수비로 연장전까지 추가 실점을 막은 뒤 승부차기로 8강 진출이라는 대업을 완성했다.

베트남의 아시안컵 8강 진출은 큰 의미를 지닌다. 동남아시아를 제패하긴 했으나 아시아 최강팀들이 모두 모이는 이번 대회에서는 고전이 예상됐다.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신체 조건은 여전히 경쟁팀들에 비해 떨어졌다. 베트남 선수들의 평균 신장은 175cm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24개국 중 가장 작다.

박 감독은 열세를 인정하고 이에 맞는 전술을 준비했다. 3백을 기반으로 하면서 상황에 맞게 5백을 병행했다. 선수들은 한 발 더 뛰는 축구로 신체적인 어려움을 타개했다. 많은 활동량은 쉽게 뚫리지 않는 끈끈한 수비의 구축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나친 수비 축구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폭스스포츠가 최근 기사를 통해 ‘박 감독의 수비적인 축구가 스즈키컵에서는 성공을 거둘 수는 있지만 아시안컵에서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요르단전 승리를 거둔 박 감독은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폭스스포츠 기자가 수비 축구를 한다면 한계에 봉착한다고 혹평했다는 기사를 봤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나는 수비 축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박 감독은 무분별하게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닌 의미있는 수비와 빠른 반격으로 결실을 맺는 ‘실리 축구’로 불릴지 원했다. “우리는 철저히 실리 축구를 한다. 수비 축구라고 말하지 말고 실리 축구라고 해달라.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하는 축구”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일본-사우디아라비아전 승자와 24일 8강전을 치른다. ‘실리 축구’가 또 다시 통한다면 4강 신화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은희, LPGA 왕중왕전 우승...한국 여자골퍼 최고령 신기록

지은희(33)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개막전인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120만달러)에서 우승했다.

2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부에나비스타의 포시즌 골프클럽(파71·6645야드)에 열린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1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인더파 270타를 기록한 지은희는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LPGA투어 통산 5승째이며, 지난해

3월 KIA 클래식 이후 약 10개월 만의 우승이다.

32세 8개월인 지은희는 박세리가 2010년 5월 당시 32세 7개월 18일에 벌 마이크로 클래식에서 작성한 한국인 LPGA 투어 최고령 우승기록을 넘어섰다.

지은희에 이어 12인더파 272타를 친 이미림(28)이 준우승했다.

3위는 최종합계 11인더파 273타를 친 벨리 코르다(미국)에게 돌아갔다. 평상선(중국)과 모리아 쭈타누간(태국)은 10인더파 274타로 공



동 4위에 올랐다. 1. 2라운드 선두를 달린 브룩 헨더슨(캐나다)은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와 함께 공동 6위(8인더파 276타)로 내려갔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창새미골, 회현사, 선진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